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2

“꽃 피고 물 흐르듯 살아보자”

[원문] 장상명주일과환(掌上明珠一顆寒 自然隨色辨來端 기회제기진분부(機回提起親分付) 암살아손항외간(闇室兒孫向外看) -가야산 해인사 명부전

[번역] 손바닥 위의 영롱한 한 개의 구슬 색은 자연을 따라 변함이 없어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친절히 알려 주었건만 어리석은 중생들은 밖에서만 찾네.

[선행(禪解)] 인간의 삶은 유한(有限)하고 자신이 살아온 길에 따라 부침(浮沈)이 심하다. 하지만 자연은 천년이 지나도 그 빛깔을 결코 잃지 않는다. 자연에게 배울 수 있는 건 무수히 많지만 그 이치를 잘 모르는 게 바로 인간이다. 자연의 발생법(發聲法)은 무념 무심(無念 無心)이다. 진리를 그냥 봐

라고 할 수 있다. 미륵사지석탑은 7세기에 세워진 석탑이니 1400년이란 세월은 결코 짧은 게 아니다. 인간의 삶은 겨우 백년도 살지 못한다. 아니 죽어 그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는 게 바로 인간의 육신이다. 하지만 사라금제호는 무려 1400년이란 장대한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영롱한 빛을 잃지 않고 후세에 발견된 것이다.

가히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가야산 명부전에 새겨진 주련(註聯) ‘손바닥 위의 영롱한 한 개의 구슬/ 색은 자연을 따라 변함이 없어라’의 내용과 닮아 있다. 또한 천년의 국보에 새겨진 문안(文案) 또한 가히 불세(佛世)의 내용이다. ‘가만히 생각하건데,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중생들의 근기(根機)에 따라 감응(感應)하시고,

계셔야 할 보리좌(菩提座)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어 부처님은 우리의 주변에 항상 계시면서 그 본분을 다하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이쯤에서 원효 대사의 말씀에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 땅에 왜 부처가 있어야만 하는가? 왜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처님이 우리들 곁에 있어야만 하는가? 원효 선사는 부처의 존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처는 부처의 세상에서는 결코 필요 없다. 고통 받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필요한 것이다.”

참으로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법언(法言)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우리 중생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불국토(佛國土)에서는 부처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부처를 두고 사바세계에서는 석가모니불이요, 미륵세계에서는 미륵유화불이라고 한다. 바로 이 고통 받는 세간에 부처가 필요하다. 묘(妙)한 이치이다. 1400년 전에 세워진 석탑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우리는 지옥과 극락이 마치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참나 사이에 갈라진다. 말하자면 자신의 마음하나에 달려 있다. 자연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이를 가르쳐 주었지만 어리석은 중생들은 간파하지 못하고 밖에서만 진리를 구하려 하고 있다. 참으로 우치(愚癡)의 소산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꽃은 피고 물은 흐르듯이 그저 자연이 던져주는 진리에 순응하여 몸을 기대고 사는 게 바로 부처의 삶이며, 자연이 우리들에게 던져 주는 진리이다. 이것이 바로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빛깔을 가진 영롱한 옥(玉)이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중생들은 이를 깨달아야만 한다.

■ 조계종 원로의원

자연의 발생법은 무념 무심, 진리 그냥 드러낼 뿐

부처님과 항상 같이함에도 업연으로 진체를 못 봐

중생들의 바람에 맞추어 몸을 드러내심은 물속에 달이 비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왕궁(王宮)에 태어나셔서 사리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면서 8곡(偈)의 사리(舍利)를 남겨 삼천大千세계를 이익되게 하셨다. 그러나 마침내 오색(五色)으로 빛나는 사리(舍利)를 7번 요잡 오른쪽으로 돌면서 경의를 표하면서 그 신봉변화는 불가사의하다'라고 적혀 있다. 실로 가슴 뭉클한 내용이다.

이와 같이 1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처님은 이 우주법계에 충만하여 안 계신 곳이 없다. 시방(十方)과 상생(相生)을 초월해 사람은 물론, 모든 풀과 나무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를 입지 않은 게 없는 것이다. 이렇듯 자연은 모든 역사를 고스란히 가슴 속에 품는다. 부처님의 법신 자체도 그 속에서 남아 흐른다. 때문에 재재처처(在在處處)가 불찰불신(佛刹佛身)이요, 삼라만상이 정정법신(淸淸法身)이며 어느 곳 어디엔들 상적광토(常寂光土)가 아닐 수 없으며 무량수(無量壽) 무량광(無量光)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진실로 실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지혜가 암둔하고 업장이 후중한 까닭에 부처님과 항상 호흡을 같이하고 동정(動靜)하고 있으면서도 부처님이 곁에 있는 걸 잘 못 본다. 말하자면 부처님의 진체(眞體)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치않는 업연(業緣)의 소치 탓으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불신(佛身)은 법계에 충만하고 모든 중생들 앞에 항상 나타난다. 또한 인연법에 따라 미치지 않은 곳이 없지만 항상 부처님이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는 본가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2

“내게 묻는 것이 그대 마음”

[원문] 問曰 若不立文字 以何爲心 答曰汝問吾 卽是汝心 吾答汝 卽是吾心.

여쭙기를, “본 바탕자리는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떤 개념으로도 규정 지을 수 없어 따로 언어나 문자를 빌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달마 스님이 대답하셨다.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고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이 곧 나의 마음이라!”

[해설] 삼처전심(三處傳心: 부처님께서 세 곳에서 가십

존자에게 마음(법)을 전했다는 일화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다 자람 앞에서 가십 존자에게 자리를 반으로 나눠서 앉게 한 일은 가십 존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법화경>을 설하시면서 대중에게 꽃을 들어보일 때 가십 존자가 그 참뜻을 알고 빙그레 웃어 답을 하자 다시 제자를 인정하셨습니다.

<법화경>을 설할 때 천상에서 꽃비가 내렸는데, 부처님께서 그 많은 꽃 가운데 한 꽃을 잡아서 대중을 상대로 들어보였 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은 단순히 ‘꽃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꽃의 참뜻을 일러라’ 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죽비를 들 어보이면서 ‘일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사들이 그렇게 하죠. ‘일러라!’ 그럼 여러분들은 ‘일러라!’ 할 때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지난 호에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라는 뜻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 말을 알아들으면 제가 이 죽비를 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한소식을 했다고 소문이 나자, 한 스님이 찾아가서 대나무로 엮은 토시를 보이면서 ‘일러라!’ 했을 때, ‘토시라고 해도 맞지 않고 토시가 아니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던 말이에요. 그런 데 인가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죽비를 보이며 ‘일러라!’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이때 ‘용(用) 차원에서 묻는 거냐, 체(體) 차원에서 묻는 거냐 하는 이걸 아셔야 돼요.

‘체’라는 것은 우주의 실상(實相)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용’이라는 것은 그 체에서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러라!’ 했을 때는 이 죽비의 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비의 본래자리를 일러라!” 하고 묻는 겁니다.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는 본래자리를 묻고 있는 겁니다. 아까 한 스님처럼 ‘토시의 본래자리를 일러라’ 한 건데 입을 열어 설명했기 때문에 ‘그르친 자리’ 이고 본래자리에 대한 답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인가를 못받은 거예요.

이 죽비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표현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러라!’ 했을 때, 입을 떠낸 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모양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둔다면 우리 육심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에서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은 사실이 아닌, 텅 빈 것입니다. 마음에서 보면 텅 비어서 모양이 없는 거예요. 이미 과학에서도 증명했듯이 일체 현상이 물질이 아니라 라는 것, 물질을 분석해 들어가니 에너지와 파동으로 이뤄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본래의 실상자리, 마음의 자리는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있고’ 하면 모양이 있어야 하고,



보은 스님 작 달마도(백양사 소장)

‘없다’고 하면 아주 없어야 되는데 있기는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마음은 다 있지만, 그 마음을 볼 수는 없습니다. 모양이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편리한대로 이름을 붙여 놓는 겁니다. 보아도 본 것이 아니고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실상자리, 본래 그 자리는 표현할 수도, 규정지을 수도,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따로 언어나 문자를 빌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이렇게 달마 스님에게 제자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이 곧 나의 마음이라.” 이와 같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가 통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마음 아닌 게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대해 묻고 있는 것이고, 대답하는 것도 마음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한 스님이 조주 스님을 찾아가서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물으니,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어. 달마 스님의 마음이나 조주 스님이 거쳐왔던 뜰앞의 잣나무라고 한 답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스님이 ‘불교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마른 똥막대기다’ 했던 말이에요. ‘똥 막대기’나 ‘부처님의 마음자리’나 다 하나이기 때문에 질론 한 그대로 답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체’의 입장에서 바른 답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큰스님이 주장자를 보이면서 대중에게 ‘일러라!’ 하거나, 주장자를 땅! 땅! 땅! 세 번 치고 일러라 할 때, ‘일러라!’ 하는 것은 ‘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는 입을 떠낸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삼배를 하던지 같이 할(喝)을 ‘악!’ 하던지 하면 답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비에 대해서 일러보거라!’ 하면 ‘체’가 아니라 ‘용’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자리를 깨달은 분들은 걸림이 없는 거예요. 이 안경이나 죽비나 하나라는 것을 알았다 하면 어떤 질문이라도 답이 나가는 것입니다.

■ 정주 혜은사 주지

金仙양생법

“정통 선도의 법만을 지속적으로 전수하여온 금선학회에서 제9기 백일 축기 금선 양생법 특별반을 모집합니다.”

깨달음은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육체는 즉 성명쌍수(性命雙修)수련함으로써 얻습니다.

유불선(儒佛仙)은 다 하나의 진리입니다.

아무리 깊은 공부와 수련을 해도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면 큰 깨달음을 얻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아무리 20년 30년 참선 수련을 해도 우리 육신의 오비(奧秘)와 정신세계의 상관을 알지 못하고는 법륜(法輪)을 얻기는 참으로 힘들고

수련(修鍊)으로 극복 못한 육체의 체내 잡념은 깊은 삼매로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깊이 침잠하여 명경지수(明鏡止水)의 혜명을 여는 공부로 가야 합니다.

◆ 수행 과정 중 주화입마로 상기증(참선으로 인한 부작용), 몸의 불편함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수련인 여러분들을 위한 성명쌍수(性命雙修)수련의 좋은 기회를 경험하여 보십시오.

Table with 2 columns: 수련 일정, 수련 장소, 수련 내용, 자격. Details include dates from Feb 20 to May 31, 2009, and various requirements for participants.

** 금선학회 발전에 국내외 지도자로서 기여코자 하시는 분은 별도 상담바랍니다.

☺☺☺ 금단의 땅으로 구도여행을 떠납니다.

7월 3일 백두산출발 → 태산 → 무당산 → 무이산 → 중남산 → 화산 → 티벳라싸 → 수미산 → 구계왕국 → 네팔카투만두 → 포카라 → 룸비니 → 인도델리 → 아그라 → 라닥 → 다람살라 → 델리 → 서울 → 국내수련 천일을 수련합니다.